

학교 외부시설 소고(小考)

Looking Over the Exterior of a School Facilities

한 명 복*

Han, Myung-Bok

1. 학교 시설은 철학적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항상 이용되는 교지(校地), 학교 건물, 공작물, 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교육적 기능을 위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과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날 학교 시설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안전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둘째, 융통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다양한 교육활용과 학생 수용을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교사(校舍) 확충 계획 등 융통성과 미래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미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미적 감각을 살려 아름답고 명랑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계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교실 대 교실, 건물 대 건물 등의 공간 배치에 있어 상호 기능의 조정을 통한 조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용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시설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이동수업이나 특별교실 수업 시간 등을 과학적으로 조정하여 공실률(空室率)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관리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학교 시설의 관리는 취급의 용이성과 편리성을 기본으로 시설 활용 매뉴얼의 표준화, 사용자 교육의 일상화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경제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생산적 시설이라기보다 주로 소비적 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학교 시설의 경제적 활용과 효율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다 구비되었다 하여도 무언가 허전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할 때 철학적 바탕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잠시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었던 서원(書院)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원은 존현(尊賢)과 강학(講學)이라는 기능에 의해 공간 구성과 배치를 하였습니다. 즉 제사 지내는 공간인 사당, 교육 공간인 강당, 유생들의 공부와 숙식을 위한 공간인 동재(東齋)·서재(西齋)로 크게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택지는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잡았고, 대부분의 서원이 경우 거의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구릉지를 잡았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정문과 강당 그리고 사당을 일직선상에 두고, 그 양쪽에 동재와 서재를 배치하였습니다. 강당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익공식(翼工式)의 단층팔작집으로, 동재와 서재는 민도리집 형식의 단층맞배집으로, 사당은 익공식의 단층맞배집으로 함으로써 검소한 선비정신을 따랐으며 복잡한 장식 대신 간소한 양식을 취했습니다. 또 담장을 낮게 세우고 그 일부는 터춤으로써 내부에서 밖의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경 식물도 적절히 심어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였습니다.

* 서울구현고등학교 교장



사진 1. 영주 소수선원



사진 2. 흰색의 '白雲洞' 붉은색의 '敬'자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1)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 구성과 배치를 한 점입니다.
 - (2) 부지(敷地)를 선정할 때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에 따른 점입니다.
 - (3) 선비 정신이 깃든 건축 양식을 택한 점입니다.
 - (4)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한 점입니다.
 - (5) <사진 2>에서 보듯이 글자의 색도 구별하여 「백운동(白雲洞)」자는 흰색으로, 「경(敬)」자는 붉은색으로 하여 색깔의 의미도 부여한 점입니다.
- 오늘날 학교 시설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학교 시설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 시설의 복합화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학교 시설이 고유의 순수 교육기능인 학습 공간으로부터 지역사회의 학습과 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학교 시설의 복합화는 물리적 차원의 복합화와 기능적 차원의 복합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적 차원의 복합화는 기능적 차원의 복합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리적 차원의 복합화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서비스를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고 공공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능적 차원의 복합화는 시설의 입지보다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학교 시설의 다양화와 복합화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된다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써 학교 시설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공간을 나누고 공간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공간별 프로그램

(1) 만남의 공간 - 대화 마당, 동네 어르신과 함께 하는 마당, 게임 마당(공놀이, 레크레이션 등), 음식나누기 마당, 오솔길, 돌담, 옥외 화장실

(2) 정보교환의 공간 - 정보검색 마당, 전시 마당, 물물교환 마당(상설 알뜰매장)

(3) 생태 공간 - 생울타리, 소공원, 잔디, 환경을 생각하는 마당, 재배 마당(노동), 비오토(biotot) 마당, 송사리 연못, 소규모 습지, 작은 숲, 실개천

(4) 문화의 공간 - 연극 마당, 음악 마당, 사물놀이 마당, 탈춤 마당, 그룹사운드 마당, 춤마당(힙합, 비보이), 영상 마당, 노래 마당, 벽화 표현 마당, 패션 마당

참고로 미국의 NWF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위한 학교 외부시설(옥외 환경) 개선 모델안을 제시하면 <사진 3>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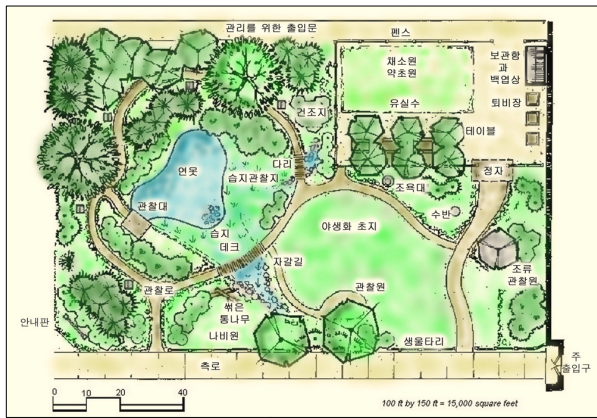


사진 3. 환경 교육을 위한 학교 옥외환경 개선 모델안¹⁾

3. 학교 시설은 안전해야 합니다.

학교 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Safety First)입니다. 많은 학생과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리히터 규모 7.9의 강진이 휩쓸고 간 중국 쓰촨(四川)성 두장옌(都江堰)시 쥐위안(聚源)진의 중고등학교는 900여 명의 학생이 매몰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의 학교는 내진(耐震)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낡은 건물인데다, 학생들이 모두 건물 안에 있는 오후 2시 28분에 지진이 발생해 더욱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한순간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²⁾

지난해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2월 경기도 K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남학생 한 명이 교실로 쓰이던 컨테이너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 옆 건물 2층인 자기 교실에서 컨테이너 지붕 위로 잘못 떨어뜨린 지갑을 주우려다 사고를 당했다.

작년 5월 경기도의 B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남학생 둘이 장난을 치다가 문에 달린 유리창이 떨어지는 바람에 왼쪽 눈을 다쳤다. 다행히 시력을 잃지는 않았으나,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학교 측은 학생 탓도 있지만, 문이 너무 낡아 보수를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가난한’ 학교에서는 낡은 시설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1) 김인호, 아름다운 학교의 모형개발,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제 1차 토론회, 2000. 7에서 재인용

2) 동아일보, “쌓이는 죽음... 통곡의 중국” 기사 인용, 2008. 5. 14

서울시 교육청은 5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상당 부분 시설 문제로 일어난다.”며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보다 맨땅에서 노는 학생들이 더 다치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운동장 바닥을 설계하고 배수 시설까지 갖추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말하고 있다.³⁾

특히 학교 외부시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학교 외부시설 개선 사례(case study)

구현고등학교가 2008년 3월 1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구현고등학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서 지난해 개교한 원목고등학교(서울시 중랑구 소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것입니다.

- 1) 학교 진입로 현황 및 문제점
 - (가) 공구상가 사거리 방향



사진 4. 구현고등학교 정문



사진 5. 구현고등학교 건물

3) 조선일보 CHOSUN.COM, “학교 안전사고 41%가 수업 중 발생... 대부분 낡은 시설 때문” 기사 인용, 2007. 3. 6

구현고등학교는 경인로 대로변에서 학교까지 연결되는 진입로 사이에 각종 공구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있기는 하나 지나치게 인도의 폭이 좁아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면 통행하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서부간선도로 옆 길 방향

고척교 북단 롯데 마트 앞 육교를 건너 서부 간선도로 옆길로 연결된 인도는 한적하고,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어서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는 용이합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폐허가 된 공장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가로등이 없어 야간 하룻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2) 학교측이 구로구청에 요청한 사항

- 안전 헨스 확장 설치
- 공구 상가 사거리 방향의 인도 쪽 차도의 가장자리 부분에 노란 선을 그어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통학로 확보
- 학교 정문 입구에 이르는 도로 재포장 및 중앙선, 인도, 차도 구분
- 서부 간선도로 옆 길에 가로등 설치
- 학교 안내 입간판 설치
- 서부 간선도로 인접 교실의 소음 방지를 위한방음벽 설치



사진 6. 안전헨스 설치



사진 7. 제2통학로 인도확장

3) 구로구청의 개선 사항

학교 측의 건의를 받은 구로구청에서는 「개방형자율학교 구현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 주통학로 안전헨스 설치(3,200만원)
- 주통학로 이미지 험프 설치(300만원)
- 제2통학로 인도 확장(1억 5,000만원)
- 전주 이설(비예산)
- 도로 재포장 및 선긋기(비예산)